



김종성 | 여행작가  
(sunny21@daum.net)

## 하천여행기 12

# 동해안에서 제일 긴 강, 삼척 오십천 여행

환선굴, 대금굴 같은 이름난 동굴들과 멋진 풍광의 해변을 간직한 강원도 삼척(三陟) 여행을 하고 싶어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가 눈길을 끄는 곳을 발견했다. 삼척시에서 미로역-신기역-도계역...에 이르는 영동선(嶺東線) 철도 노선을 따라 이름의 유래를 궁금하게 하는 하천인 오십천(五十川)이 흐르고 있어서다. 영동선 기차 길 옆으로 하천이 마치 연리지 나무처럼 꼭 붙어 있다. 이 하천 길을 따라 자전거 타고 달려보고 싶어졌다. 영동선 철마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산이 대부분인 삼척 땅이지만 오십천이 있어서 덜 힘들 것 같았다.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땅덩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던 고을이 삼척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에 북평읍이 동해시가 되

어 분리되었고, 이듬해엔 서남쪽의 황지읍과 장성읍이 태백시로 빠져나갔다. 그래도 삼척은 끄떡없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지닌 해변과 한적한 어촌, 첩첩의 명산 두타산과 쉬움산, 응봉산이 수호신마냥 남북으로 지키고 서있다. 무엇보다 동해안에서 가장 길다는 하천인 오십천을 중심으로 한 깊은 골골의 유서 깊은 유적지, 전국 최고의 동굴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오십천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산에서 원통골로 넘어가는 큰 샘에서 발원하여, 삼척 정상동에서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48.8킬로미터 유역면적 294㎢의 강이다. 주요 지류하천은 무릉천을 포함하여 15개 하천이다. 동해안에서 가장 긴 강이자, 감입곡류하천으로 영동선 기차 길을 벗



거친 산악지대에 자리한 영동선 기차역, 삼척시 도계역



기름으로 인해 도계읍 동네 사이를 겨우겨우 흘러가는 오십천

삼아 흘러가는 지리적 특징이 있는 하천이다. 갑입곡류(嵌入曲流) 하천이란, 하천의 상류에 해당되는 산간 지역 골짜기를 깊이 파면서 흐르는 물돌이가 많은 하천을 말한다. 원래의 유로를 유지하면서 더욱 깊은 협곡을 만들며 곡류한다. 따라서 길이가 직선거리보다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오십천이 가장 가까운 영동선 도계역까지 가는 유일한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KTX 열차나 관광 열차에 비하면 누추할 정도의 소박한 열차지만 자전거쪽에겐 친근한 열차다. 열차 내 카페 칸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계역에서 오십천 길 따라 바다가 가까운 도시 삼척시까지의 약 35킬로미터. 과연 어떤 길과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못 궁금한 나머지 청량리역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한 기차 좌석을 뒤로 깊게 누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 50번 굽이치며 흘러가는 오십천

태백역, 철암역의 거친 산악지대를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인 영동선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역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 사이에 부설된 철도다. 영주에서 태백산맥을 횡단하여 강릉에 이르는 대 산업철도로서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지금도 영동선 철도는 산업철도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전제 열차 운행 횟수 중 약 4분의 3을 화물열차 운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객보다는 주로 화물 운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래 동해 북부선·철암선(鐵巖線)·영암선(榮巖線)·삼척선(三陟線)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963년 5월에 이들 철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영동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총연장은 193.6km이다.

오십천 변을 따라 태백시 통동의 동백산역을 지난 열차는 첩첩산골 통리협곡이 있는 삼척시 도계읍에 자리한 도계역에 정차했다. 아직도 증기 기관차 시절의 급수탑이 남아있는 아담한 역사(驛舍) 기차역에 어울리는 아담한 전두 재래 시장이 정답다. 기차역 건너편에 오십천이 기차길 옆을 따라

동해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 삼척에는 논이 적고 밭이 많아 농산물은 그리 풍부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광산물 자원과 수산물이 풍부한 편이다. 삼척에서 많이 나는 광물은 석탄과 석회석이다. 주로 산으로 둘러싸인 도계읍 쪽에 광산이 몰려 있다. 산이 많은 삼척의 특이한 점은 이곳의 산은 거개가 석회암 성분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계읍을 지나 흐르는 오십천변이 유난히 회색빛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었다.



첩첩산골 사이를 지나는 길, 오십천과 작은 마을이 있어 덜 힘들었다.



탄광과 시멘트 공장, 기물의 영향으로 회색빛의 강미른 하천 상류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해안까지 산지가 발달해 평야가 적은 강원도 삼척의 자연은 '천길 푸른 석벽에 오십 맑은 냇물'이라는 오십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이 냇물을 따라 철로와 교통이 발달하였고 예나 지금이나 이곳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다.

그 이름의 유래를 궁금하게 했던 오십천은 하천의 곡류가 매우 심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옛날 삼척에서 영남으로 오고 가는 길은 오십천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 오십천

을 따라가자면 어립잡아 오십여 번 물을 건너야 했는데, 물  
굽이가 오십 굽이나 된다고 하여 오십천이라 했다고 한다. 기  
차를 타고 편하게 갔다면 몰랐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삼척시  
오십천 하구까지 가보니 하천의 굽이치는 곡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겐 자전거에 달린 수통의 물을 오십 번 정  
도 마신 기억 속 오십천으로 남을 것 같다.



영동선 기차 철길과 벼 삼아 흘러가는 오십천



오십천 가에서 종종 마주쳤던 시멘트 공장

## 영동선 철길을 벼 삼아 바다를 향해 흐르는 하천

도계역에서 고사리역, 마차리역을 지나 신기역을 향해 가  
는 길에 동행한 오십천은 하천 고유의 정취를 잃어버린 메마  
른 하천이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 찾아온 40년 만의 지독  
한 가뭄이 하천의 메마른 풍경에 한 몫 하는 듯 했다. 하천  
변 마을 길목마다 산불조심 초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유니  
폼 조끼를 맞춰 입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  
었다. 이맘때가 마을 뒤로 이어진 산에 불이 가장 나기 쉬울  
때라고 한다.



하천변 마을 들녘에 푸릇푸릇 봄이 찾아왔다.



폐역이 된 영동선 하고사리역, 근대문화유산이 되어 남아있다.



여행자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준 영동선 신기역(삼척시 신기면)

오십천 유역은 조선시대까지도 나무들이 무성하고 강물이  
맑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탄광의 갱목으로 쓰  
기 위해 아름답디 나무들을 남벌하고 탄광의 폐수가 흘러들  
어 황폐화되고 말았다. 시대의 변화로 탄광의 수는 줄어들  
었으나, 도계읍에 있는 도계탄광의 영향인지 하천 상·중류  
엔 탄의 때가 까맣게 물든 조약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어지는 오십천 가엔 수가 줄어든 탄광 대신 자리한 시멘트  
공장들이 많이 보였다. 시멘트를 싣고 오가는 거대한 트럭들

의 행렬을 보며 하천변을 달리다가 오십천을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시멘트 공장의 삭막한 풍경을 여러 번 목도해야 했다.

한반도에 닥친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여우고 마른 회색 빛 하천에 온기를 넣어주고 보듬어 주는 유일한 존재는 봄이 찾아온 하천 변의 밭이었다. 언 땅이 녹고 햇볕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헐거워진 흙에서 노곤한 냄새가 풍겨왔다. 한껏 부풀어 오른 흙 위로 늙은 부부 한 쌍이 주저앉아 호미로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봄별은 조금 더 깊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늘밭과 봄동밭에 김을 매는 농군 부부는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갈 땐 아마 남편이 앞서고 아내는 몇 걸음 떨어져서 뒤따라갈 것 같다.

하천변길, 뚝방길, 38번 국도, 영동선 철길 옆 등 다양한 길을 달리다 외외의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 된 무정차 무인 간이역을 만났다. 등록문화재 336호가 된 삼척 '하고사리역'이다. 동네 이름에서 따온 기차역인데 삼척시 도계읍엔 고사리, 밭이리, 차구리, 마차리 등 마을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는다. 1966년 생겨난 하고사리역은 예전부터 마을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지금도 이름 정다운 소달 초등학교, 소달 중학교가 남아 있다. 하고사리역 앞에도 있던 산불감시 초소 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가.

이후 석탄채굴을 위한 광업소가 생기고 인근에 고사리역(현재는 폐역)이 신축되면서, 마을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쇠락하게 되었다. 2006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간이역과 역사와 추억을 같이 한 마을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게 되었다. 가지를 치렁치렁하게 펼치고 서 있는 고목나무와 함께 마을 풍경이 한 눈에 보이는 간이역의 자리로 보아 마을의 기차역이었을 땐 무척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을 것 같다.

봄날의 적막으로 가득한 인적 없는 마차리역을 지나면서 사람 사는 마을의 봄이 그리웠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하천변 소읍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기역(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이 나타났다. 오십천 길을 달리다 만나는 기차역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좋은 휴식처다. 깔끔한 역내 대합실에서 물

통도 채우고 앉아 쉬다가 마주친 푸근한 인상의 역무원 아저씨는 늦은 점심 밥집을 찾는 내게 역 앞에 있는 식당 같이 안보였던 백반 집을 추천했다.

동네사람이 아닌 뜨내기가 겹도 없이 점심때가 지나 찾아와서인지 '어서 오세요!' 반기기는커녕 나와 애마 자전거를 힐끗 쳐다보던 아주머니. 새로 돌아난 봄 냉이를 얹은 된장에 끓인 국을 밥상에 올렸다. 조개 몇 마리도 국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국 한 모금에 지난 겨울 동안 움츠려있던 뱃속 창자가 깜짝 놀라며 기지개를 켜다. 향긋한 냉이의 봄내음이 국물을 통해 몸속으로 자욱이 퍼져갔다. 냉이면 냉이, 쑥이면 쑥, 시금치 된장국까지...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가 담긴 된장의 포용력은 내 어머니의 품속처럼 크고도 깊다.



조선 왕조의 선대 능묘인 영경묘 가는 울창한 금강소나무 숲길



영경묘 숲길에 피어난 예쁜 봄꽃들이 발길을 붙잡았다.

## 금강송 소나무 군락이 있는 준경묘, 영경묘

신기역을 지나 상정역(폐역)에 다다르다 보면 '준경묘', '영경묘(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라는 설명글이 쓰

여 있는 안내판이 보인다. 강원도기념물이자 국가지정 사적(524호)이기도 하다. 준경묘(濬慶墓)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 조부인 양무장군(陽茂將軍)의 묘이고, 영경묘(永慶墓)는 양무장군의 부인 이씨의 묘이다. 남한 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조선 왕조의 선대(先代) 능묘다.

오십천 변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있는 영경묘에 가보았다. 왕릉에 있는 큰 무덤을 예상하고 갔다가 흥살문 너머 무덤을 지키고 서있는 키가 장대한 노거수(老巨樹: 오래되고 큰 나무) 소나무들에 놀랐다. 서울과 경주 남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구불구불한 소나무들과 너무도 달랐다.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에 있는 오래 묵을수록 나무껍질이 벗겨지면서 붉은 빛 혹은 황갈색을 내는 금강송, 황장목, 춘양목이라 불리는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하다. 소나무들은 암석처럼 단단하다고 하여 강송(剛松)이라고도 부르는데 강원도 지역의 소나무를 지칭한다. 오래된 능 주변에서 살고 있어선지 경건하고도 단정하다. 강원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의 푸르름이 진중하고도 깊다. 붉고 곧은 기둥을 높이 올려가다가 맨 꼭대기에서만 가지가 퍼지고 잎이 돋는다. 아무데서나 가지들 뻗어 늘어뜨리지 않는다.

나이테가 조밀하고 심재(心材 : 나무의 제일 깊고 딱딱한 속살)에 송진이 가득 차 쉽게 썩지 않으며 잘 갈라지지도 않는다. 예로부터 임금의 관이나 궁궐 사찰의 대들보 기둥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경복궁 중수 때, 불타버린 숭례문(崇禮門)의 복원공사도 바로 이 금강소나무가 쓰였다. 역시 소나무는 우리 땅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유난히 산이 많은 삼척은 옛날 궁궐 건축에 쓰이던 금강소나무가 많이 나는 곳으로도 널리 이름나 있었는데, 삼척 사람들은 이 나무를 베어서 배에 싣고 동해를 돌아 서울에 진상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숲 속으로 걸어들어갈수록 울창한 노거수 소나무 사이로 경쾌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완만한 산길이 운치 있고 좋았다. 평일이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적막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노란색, 흰색의 보기가 드문 제비꽃이 어찌나 귀엽고 고운지 자꾸만 발길을 붙잡았다.

숲이 오래 전 무덤 속 망자와 삶이 고단한 현대인을 모두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까닭은 그곳이 문명이나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명산으로 알려진 두타산의 지맥에 자리를 잡고 있다. 건너편에 있는 준경묘와 같이 고려시대 이후 조선왕조의 태동과 함께 500여 년 왕조의 정기를 이을 수 있는 명당자리였다고 한다.



중상류 지역을 지나자 비로소 풍성해지는 오십천 풍경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알을 낳으며 오십천에 찾아오는 황어

## 오십천의 절경, 국보 죽서루

삼척시 미로면에 있는 미로역을 지나다 철도공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철길을 지나는 게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다가갈 말을 걸었다. 선로 보수 공사를 하는 직원들로 아쉽게도 미로역은 폐역이 되었던다. 미로역을 지나면서 오십천은 비로소 풍성한 수량에 하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류 특유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왜가리 혹은 해오라기로 보이는 길쭉한 목과 다리를 가진 새들이 천변을 산책하듯 천천히 날아다녔다. 덩달아 시간도 느리게 가는 듯 했다.

삼척시내 하류지역의 오십천에선 1969년 연어의 치어를 방류한 후 지금까지 방류와 어획을 해마다 하고 있어 연어의 회귀천으로 유명해졌다. 이외에 은어, 송어, 버들개 등을 비롯한 11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연어나 은어는 못 봤지만 하천변에 나온 낚시꾼 아저씨들이 잡아놓은 몸통 비늘에 누런빛이 도는 잡은 황어를 실컷 구경했다. 황어는 회유성 어류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산란기인 3월 중순경부터 물이 맑은 하천으로 소상하여 자갈이나 모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하천 돌다리가 정겹다.



관동팔경중 제1경이라 할 만한 죽서루 풍경



기괴모양한 바위와 수백 년 묵은 고목나무가 있는 죽서루 안뜰

랫바닥에 집단으로 알을 낳는단다. 낚시꾼 아저씨는 요즘 같은 지독한 가뭄에도 하천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게 신기할 정도라 했다. 강원도 내 지하수를 쓰는 작은 마을마다 물 길이가 말라 인강생심 생각지도 못했던 생수를 사다 먹고 있을 정도라고.

동해바다가 지척에 있는 삼척시 하류엔 멋들어진 풍경의 유서 깊은 누각 죽서루(竹西樓)가 있다. 오십천이 감돌아 가는 물돌이의 절벽, 그 벼랑위에 날아 갈 듯 죽서루가 서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오십천의 맑은 물이 휘돌아가는 깎아지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로 보였다.

누각 아래로 흐르는 하천엔 쪽빛 물감을 풀어 놓은 듯 고려청자가 떠오르는 물빛이 참 곱다. 누마루에 올라 조망하는 오십천 풍광이 여간 멋스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강릉 경포대를 '천하제일경'이라고 했고, 삼척 죽서루를 '천하제일루'라고 불렀나보다. 본래 죽서루의 이름은 누각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대나무 숲 속에 죽장사라는 절이 있어 죽서루라 불렀다고 전해 온다.

죽서루는 1266년 고려 원종 7년에 지금 남아 있는 역사책 가운데 세 번째로 오래 된 <제왕운기>를 저술한 고려시대의 학자 이승휴가 누각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것을 근거로 1266년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뒤 조선 태종 3년(1403)에 삼척부의 수령인 김효손이 고쳐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죽서루는 경치가 좋은 절벽에 바위를 기초로 삼아 세워졌는데 모두 열일곱 개의 기둥 가운데 아홉 개의 기둥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으며, 열일곱 개의 기둥이 모두 길이가 다른 점이 특이하다. 누각을 지을 때 오십천 절벽의 바위 하나하나에 맞는 기둥들을 맞추느라 그 크기와 길이가 각기 다르게 된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그 품에 맞게 건물을 지은 선인들의 친환경 마음 씀씀이에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전해져 온다. 누각 마당에 살고 있는 350살이나 묵었다는 여러 그루의 고목 향나무도 눈길을 끌었다. 기품 있는 나무 모습에 옛날엔 ‘

학자나무'라고 불렸던 향나무, 하늘을 향해 한껏 가지를 펼친 모습이 신묘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풍류를 즐겼던 선조들의 안목이 돋보이는 죽서루는 국보 제213호이기도 하다.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이 절벽과 비취색의 깊은 소(沼)의 풍경은 빼어난을 넘어 잠시 어지럼증을 느끼게 했다.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강세황, 엄치옥 등 진경산수를 대표하는 많은 조선의 화가들이 그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 오늘에 전하는 등 예부터 시인 묵객이 이곳에 수없이 찾아와 시 한 편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까닭도 바로 이곳의 빼어난 경치 때문이다.

상류 쪽을 보면 죽서루 앞에서 굽이쳐 온 물길이 산줄기를 관통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본디 물길은 산줄기(남산) 너머에서 시내 쪽으로 한 굽이돌아 흘렀다고 한다. 수해가 잦아 1962년부터 8년 동안 산을 절단해 물줄기를 곧게 돌리는 공사를 벌여 70년 완공했다. 오십천교 건너 황산 숲길 들머리에 이를 알리는 '오십천 수로변경 통수 기념비'가 세워져 있

다. 죽서루 앞 천변엔 동굴 신비관,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모여 있었다.

죽서루 누각 안마당에는 고대 선사시대의 원초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기기묘묘한 바위들도 볼거리다. 그 가운데 '용문바위'라고 이름 붙은 것이 있다. 용문(龍門)은 바위에 행서체로 '龍門'이라 새긴 음각글씨가 남아 있다. 신라 문무왕이 죽어 용이 된 후 동해를 순행하다가 오십천까지 거슬러 오게 되었는데 그 경치가 너무 빼어나서 그만 흠뻑 빠지고 말았으나.

조선 성종 때에 노사신 등이 각 도의 지리, 풍속 등을 기록한 관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소개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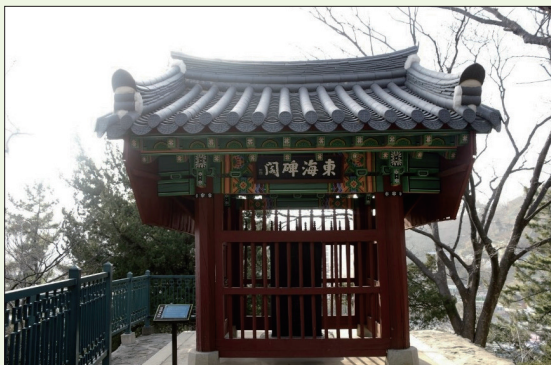
“죽서루는 객관 서쪽에 있다. 절벽이 천 길이고 기이한 바위가 총총 섰다. 그 위에 날아갈 듯한 누를 지었는데 죽서루라 한다. 아래로 오십천에 임했고 냇물이 휘돌아서 못을 이루었다. 물이 맑아서 햇빛이 밑바닥까지 통하여 헤엄치는 물고



큰 규모의 장미공원이 꾸며진 오십천 하구 - 삼척시청 누리집 사진



오십천 하구 삼척항으로 이어진 시멘트 공장의 수송관



과거 오십천 범람을 막고자 세웠던 비석, 동해비(삼척시 정상동)



오십천은 하구에서 삼척항을 만나 비로소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기도 날날이 헤아릴 수 있어서 영동 절경이 된다.”

영동선 기차 길과 벗 삼아 함께 어울리며 흐르던 오십천. 죽서루를 지나면서 전형적인 도시 하천의 모습으로 바뀐다. 하천 변에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잘 나있고, 중상류 지역에 선 잘 안보이던 시민들이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하천 변에 예쁘게 자리한 장미공원이 눈길을 끌었다. 2013년 오십천변 7만㎡ 부지에 조성한 ‘삼척 장미공원’은 규모가 무척 크다 싶더니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이라한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오면 오십천변 하류가 색색의 장미들로 화려해지겠다.

하지만 하천 건너편에 거대한 시멘트 공장이 아름다운 장미공원과 대치하듯 서있었다. 삭막한 살풍경의 회색빛 공장이지만 삼척에선 향토기업 대우를 받고 있는 오래된 회사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커다랗고 긴 파이프가 하천을 가로질러 삼척항까지 뻗처럼 이어져 있다. 바닷물이 육지 안쪽까지 들어오고 좁은 수로를 따라 작은 배들이 조심스럽게 오가는 삼척항 선창에는 고요히 찌를 드리운 낚시꾼들의 모습이 보인다. 오십천 하구에 자리 잡은 삼척항은 옛 이름이 고자진이 었다가 정라진으로 바뀌었으며, 조선 시대까지 어항의 노릇 뿐 아니라 군사 기지로서 삼척포진을 두고 있었다.

큰 어시장과 횃집이 들어선 정취 있는 항구로 이름을 떨쳤지만, 1937년 이곳에 시멘트 공장에 들어서면서 어업 기지라는 항구의 노릇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삼척항은 시멘트 수출 항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오

십천은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까지 인간 문명의 안락함과 편의의 상징 시멘트 생산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다.

오십천에 바다로 들어가는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 언덕 위에 척주 동해비(陟州 東海碑)가 세워져 있다. 척주는 삼척의 옛 이름이다. 이는 1661년(조선 현종 2년)에 삼척부사 허목이 홍수 때가 되면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 오십천이 범람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해바다를 예찬하는 뜻이 담긴 동해송(東海頌)을 지어 독창적인 고전자체로 써서 척주 동해비를 세웠더니 바다가 조용해졌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담겨있다. 수해(水害)를 막기 위한 축문이나 주문이 아니라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비석을 세우다니 의외다.

정말 바다가 가까워졌는지 문득 하늘에서 부리 끝에 빨간 립스틱을 칠한 갯이 갈매기들이 ‘끼룩 끼룩’ 목청을 높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정말 이름대로 고양이들이 우짖는 것 같아 재밌다. 저 갈매기들은 이 하천이 깊은 산골짜기 사이를 50번을 굽어 돌며 흐르다 여기까지 온 걸 알까... 바다가 아닌 하천가 가로등 꼭대기에 앉아 있는 갈매기들을 마주보는 기분이 이채로웠다. 오십천은 짹짹한 생선 비린내와 바다 내음이 뒤섞인 삼척항에 닿아서야 비로소 제 할일을 다 했다는 듯, 어머니 품 같이 넓은 동해바다로 유유히 흘러갔다.

